

“지금 당장 목표 대학 5곳 정하고, 자기소개서 써라”

EBS 대표강사들 광주 특강

원하는 대학 전형 살피고
학생기록부 부족분 체크

대입 성공 1순위는 수능
수시 등 전략은 그 다음

4월엔 중간고사 올인
'자소서' 초안 마쳐야

논술 준비는 시기상조
독서생활화가 더 유익

“당장 급한 건 목표 대학 5곳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부 전형이든 논술 준비든 할 수 있습니다.”

최경석(대원고 교사) EBS 대표강사는 최근 조선대에서 열린 2016 대입 수능 전략 특강에서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면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며 “일정 싸움에 허둥대지 않으려면 목표 대학 5곳을 정하는 게 먼저”라고 주문했다.

대학에 따라 전형이 다른 까닭이다. 목표 대학을 정하고, 그 대학의 전형을 꼼꼼히 분석한 뒤 학교 생활기록부를 점검하라고 했다. 학생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매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강사는 수시를 목표로 하더라도 수능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입 성공의 1순위는 당연히 수능”이라며 “수능 준비는 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신이 중요하다”거나 “비교과 영역을 더 챙겨야 하는 것 아니다”고 반문하는 수험생도 있지만 그것은 전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짧은 생각이라고 단정지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등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물론 교과 전형과 논술에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적성검사에도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기도 한다. 거꾸로 중하위권 학생 중에서 취업을 감안해 전문대로 지원하는 경우도 수능을 활용해 3개 영역 또는 2개 영역의 점수로 선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을 잘 보면 취업과 직결된 학과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능을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능은 수시 6회와 정시 3회, 산업대·전문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을 포기한 채 수시만 준비했다가는 정시모집엔 원하는 대학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강사는 목표 대학을 정했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3월말이면 자기소개서 초안은 이미 나와 있어야 한다”며 “아직 없다면 서둘러 초안을 만들고 여름방학 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우며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술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말라고 말했다. 학원을 쫓아 ‘논술 특강’을 듣기보다는 독서가 더 유익하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특히 독서활동을 강조했다. 독서활동은 영역별 융합형 수능에서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것이다. 수능을 준비하며 독서를 생활화한다면 논술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다. 그런 뒤 여름방학 때 한달동안 논술에 집중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부터 논술에 열매다보면 지나치게 학습량이 늘어나 내신도, 수능도, 논술도 모두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시되는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조화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독불장군식 카리스마 리더십은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최근 조선대에서 열린 '2016 EBS 대학입시 설명회'에 참석한 여고생들이 EBS 대표강사의 2016 대학입시 전략을 관심있게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교협 내달 2일 광주서 대입 설명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다음달 2일 광주교육정보원에서 2016학년도 대학입학정보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수시모집에 앞서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이 직접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대입 정보를 제공한다. 일대일 진로진학 상담부스, 전공상담기부단 상담부스 등을 지역 특성에 맞

게 운영할 예정이다.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은 17개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현직교사 242명으로 구성됐다. 대교협은 또 300개 고교를 직접 방문해 대입정보 설명회를 연다. 이와 별도로 전화상담은 대표번호(☎ 1600-1615)를 통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홈페이지(univ.kcue.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영어 1문제만 틀려도 2등급

3월 학력평가 채점 결과

만점자 비율 4.36% 달해
자연계 과탐 응시율 갈수록 늘어

3월 학력평가 영어영역에서 1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학평 주관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지난 11일 시행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채점 결과, 영어 만점자 비율이 4.36%로 원점수 커트라인이 100점이었다. 1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지게 됐다. 이번 학평은 전국 1902개교에서 49만3263명이 응시했다. 광주에서는 57개교 1만7023명, 전남에서는 103개교 1만6623명이 시험을 치렀다. 3월 학평 응시 인원의 특징은 자연계(이과) 과학탐구 응시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올해 과학탐구 응시자 비율은 전체의 39.6%로 전년도 39.3%보다 0.3%포인트 증가했고, 2008년 33.4%, 2011년 35.6%, 2012년 38.7%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학평에서 고2 자연계(이과) 과학탐구 응시자 비율은 44.8%로 전년도 40.7%보다 4.1%포인트 증가한 것을 유추하면 내년도 고3 자연계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종운 중로학원하늘교육 평가사는 “이는 최근들어 취업에 유리한 이공계열 진학자가 증가하고, 고교 반 편성에서도 이과반이 종전보다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7 수능의 수학영역 출제 범위가 인문계가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이 3과목(수학II, 미적분I, 확률과통계)으로 종전보다 1과목 늘어난 대신, 자연계의 수학 가형은 출제 과목이 3과목(미적분II, 기하와벡터, 확률과통계)으로 종전보다 1과목 줄었다”며 “취업에 유리한 이공계열 진학과 맞물려 과학탐구 및 수학 가형 응시 비율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망했다.

고3 3월 학평은 영어영역이 너무 쉽게 출제됐다. 영어는 만점자 비율이 4.36%로 1등급 원점수 커

트라인이 100점(표준점수 131점)이 돼 1문제만 틀려도 2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원점수 95점(표준점수 127점), 3등급은 86점(표준점수 119점)이었다.

국어는 B형의 19번 문항이 복수 정답(문항 오류)에 따른 모든 선지가 복수 정답, 배점은 3점으로 인정돼 당초 예상보다 커트라인이 올라갔다. 1등급 커트라인 원점수는 96점으로 당초 예상된 94~95점보다 1~2점 정도 올랐다.

국어영역 만점자 수 및 비율은 국어A형이 813명, 0.37%이고 국어B형이 1283명, 0.48%이다. 국어A형 1등급 커트라인은 원점수 95점(표준점수 128), 2등급 원점수 90점(표준점수 124), 3등급 84점(표준점수 118) 등이고, 국어B형 1등급 커트라인은 원점수 96점(표준점수 129), 2등급 원점수 91점(표준점수 124), 3등급 84점(표준점수 118) 등이다.

수학 영역 만점자 수 및 비율은 수학A형이 어렵게 출제돼 578명, 0.19%이고 수학B형이 2076명, 1.11%이다. 수학 만점자 최고점 표준점수는 수학A형이 159점, 수학B형이 145점으로 14점 차이가 났다.

수학 영역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A형 1등급 커트라인은 원점수 81점(표준점수 141), 2등급 원점수 69점(표준점수 130), 3등급 52점(표준점수 115)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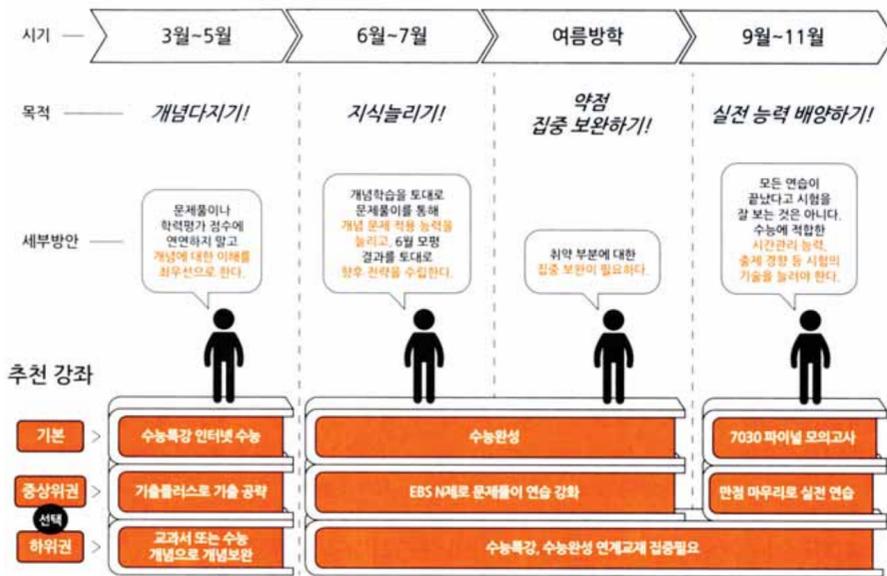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B형 1등급 커트라인이 원점수 92점(표준점수 139), 2등급 원점수 80점(표준점수 129), 3등급 66점(표준점수 117) 등이다.

2017 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하는 고3 월 학평에서 한국사 1등급(표준점수 50점 만점에서 40점 이상) 비율은 16.55%였고 서울대가 감점이 없는 기준으로 선정한 3등급(원점수 30점) 이상 비율은 47.13%로 절반 정도에 달했다.

2018 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실시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등급 분할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고1 3월 학평에서는 별도의 등급은 제공되지 않았다. 영어영역 원점수(100점 만점) 평균은 55.81점이었고, 80점 이상 비율은 20.25%로 추정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EBS 교재 활용 이렇게

수능개념→수능특강→수능완성→기출플러스 수시로



2016학년도 수능에서도 EBS 70% 연계 정책은 계속된다. 2015 수능 만점자들이 “EBS 수능을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보더라도 ‘EBS 수능 연계정책’이 수능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을 알 수 있다. 그만큼 EBS교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수능 성공의 열쇠다. 하지만 EBS 교재의 종류가 다양하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만큼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 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신삼수 EBS 수능교육부장은 EBS 연계 대표적 교재인 ‘수능특강’, ‘인터넷수능’, ‘수능완성’ 시리즈를 추천했다.

일하게 강사들이 직접 교재를 집필한다. 저자 직강 시리즈인 만큼 강사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결정체다. 강의는 30강 내외로 설계돼 학습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수능개념’으로 개념 완성을 달성했다면 ‘수능특강’으로 수능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올해 처음 선보인 ‘수능열기’는 ‘수능개념’과 함께 학습한다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국어·수학·영어 영역에 한해 교재를 발간하고, 해설 강의를 제공한다.

‘수능기출플러스’는 기출문제 학습의 바이블이다. EBS 대표강사들은 “기출플러스는 학습단계와 상관없이 연중 들여다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작년과 달리 ‘수능기출플러스’는 문항별 해설강의

는 검색으로 대체하고, 기출을 통한 실력 다지기를 위한 유형별 기출 특강으로 강화를 설계했다.

6월 모의평가에서 웃느냐 우느냐를 가늠하는 핵심 연계 시리즈는 ‘수능특강’과 ‘인터넷수능’이다. 또 ‘수능완성’과 ‘EBS N제’로 대표되는 문제풀이 단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9월 모의평가 성적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신삼수 부장은 “국어와 영어 영역은 EBS 연계 문제 70%를 적용받기 때문에 올해 나온 EBS 연계 교재를 반드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문이 없는 수학의 경우는 개념과 문제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2~3년 전에 나온 EBS 연계 교재도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착하고 정직한 빅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빅거리 X파일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김진 채널A기자

http://tv.channela.com/culture/2015/02/2020_3333-4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안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